

# 은퇴한 샤라포바 “건축가, 사탕회사 운영 관심”

지난 달 27일 전격적으로 은퇴를 선언한 미녀 테니스 스타 마리아 샤라포바(32·사진)가 은퇴 이후의 계획을 밝혔다.

2일 ‘마니아리포트’에 따르면 뉴욕타임스는 전날 샤라포바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그녀가 테니스가 아닌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즐길 수 있는 일자리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샤라포바는 테니스, 스포츠 시설을 디자인 하는 건축가와 자신이 운영해 온 사탕 회사인 ‘슈가포바’의 경영에 관심이 있다며 은퇴 후 테니스 코치 등을 고려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건 No이다. 모든 이에게 약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샤라포바는 또 곧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리는 비즈니스 콘퍼런스에서 선수가 아닌 사업가 자격으로 참가할 계획이라며 “나는 더 전진적이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들은 은퇴 선언 후 일부는 복귀하거나 또는 테니스와 관련한 일들을 하는 게 대부분이어서 샤라포바가 테니스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 ‘제2의 삶’을 살기로 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지난 달 27일 “샤라포바가 대회 출전 상금과 초청료, 후원 계약 등을 통해 벌어들인 총수입은 3억2천500만 달러에 이른다”며 “이는 3억5천만 달러의 윌리엄스에 이어 여자 선수로는 전 종목을 통틀어 2위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보도했다. 대회 출전 상금만 따지면 윌리엄스가 9천271만 5천 122달러, 샤라포바는 3천877만 7천962달러로 5천 400만 달러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회에서 번 상금을 제외한 초청료, 후원 계약 액수는 오히려 샤라포바가 윌리엄스보다 더 많다. 샤라포바는 은퇴 이후에도 나이키, 에비앙, 포르쉐 등과의 광고계약은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 IOC, ‘남녀 공동 기수’ 등 성 평등 추진

앞으로 올림픽 개회식에서 출전국의 남녀 기수가 나란히 자국 국기를 들고 입장하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전날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집행위원회에서 올림픽에 참가하는 206개국 국가올림픽위원회(NOC)가 남녀 선수 각 1명씩을 개회식 공동 기수로 지명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올림픽 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결정이다.

지금까지 IOC의 특별 지원으로 구성된 남북 단일팀은 올림픽과 국제종합대회 개회식에서 남녀 공동 기수가 입장했지만, 그 외의 경우엔 남자 또는 여자 선수가 해당 국가를 대표해 단독 기수를 맡았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성평등 구현이야말로 올림픽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세계에 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IOC는 여자 선수의 올림픽 참가를 확대해 성비 균형을 이루도록 전력을 쏟아왔다. 도쿄올림픽에서 남녀 혼성 종목의 수를 크게 늘린 게 이를 뒷받침한다. IOC는 1900년 파리 하계올림픽 때 22명에 불과했던 여자 선수는 올해 도쿄올림픽에서 많이 증가해 비중이 전체 선수단의 48.8%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직전 올림픽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선 여자 선수의 비율이 역대 동계 올림픽 사상 최고치인 42%를 차지했다.

IOC는 올림픽에 출전하는 모든 나라와 난민팀은 남녀 선수를 각각 1명 이상 뽑아 선수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도 만들었다.

2012년 런던 하계올림픽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브루나이가 최초로 여자 선수를 파견한 덕분에 역시 역대 최초로 모든 올림픽 참가국이 1명 이상의 여자 선수를 내보낸 사례가 있었지만, 모든 NOC가 남녀 선수를 각각 1명 이상씩 뽑아 선수단을 보낸 올림픽은 아직 없었다.

이번 두 결정은 7월 예정된 도쿄올림픽부터 적용된다.

# MLB “팬이 건네는 물품 받지 말라”

미국 메이저리그(MLB) 선수들은 웬만해서는 팬의 사인 또는 촬영 요청을 거절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이런 문화도 바뀌었다.



축할 것, 역학(疫學) 전문가로부터 감염병 예방에 대해 교육을 받을 것, 모든 선수에게 최신 독감 백신을 접종시킬 것 등을 주문했다. 사무국은 조만간 클럽하우스와 훈련 시설에 구비해야 할 위생용품 등을 지정해 각 구단에 전달할 방침이다.

5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전날 각 팀에 코로나19 관련 대응 지침(memo)을 보내 “팬이 사인을 해달라며 건네는 펜이나 야구공을 직접 받지 말고 악수도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이에 앞서 정규리그 일정을 소화 중인 미국프로농구(NBA) 사무국 역시 선수들에게 팬과 손바닥을 맞대는 하이파이브를 하지 말고 주먹을 부딪치는 방식(fist bump)을 사용하라고 권했다.

사무국은 각 구단에 지역의 보건당국과 핫라인을 구

사무국은 한국, 이란, 이탈리아 등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국가에서 온 취재진이나 스카우트를 클럽하우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구단이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을 처음 보도한 ESPN은 최지만(29·탬파베이)이 한국 취재진과 인터뷰할 때 클럽하우스 바깥을 이용한다는 사실도 소개하면서 현재로서는 개막(27일)을 늦출 계획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